

# “결승까지 이란은 없다” 아시안컵 ‘조1위’ 효과

휴식일 2배 · 만나는 상대 · 8강 이후 이동 거리도 득



16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 나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AFC 아시안컵 C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 한국 김민재가 골을 넣은 후 황인범, 손흥민과 기뻐하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C조 1위를 차지하면서 16강 토너먼트에 큰 이득을 보게 됐다. 일정, 상대 등 모든 면에서 비교적 수월한 길을 걷는다.

피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6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UAE 아부다비의 알나얀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의 대회 C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황의조(김바 오사카)와 김민재(전북)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3전 전승(승점 9)을 거둔 한국은 중국(2승1패 승점 6)을 따돌리

고 C조 1위로 16강에 갔다.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하면 서 보다 편하게 토너먼트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우선 휴식일을 두 배 가까이 벌었다. 한국은 오는 22일 두바이에 있는 알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16강을 치른다. 1위로 진출한 덕에 5일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2위로 진출했다면 3일 뒤인 20일 경기를 치러야 했다.

또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17일 두바이로 이동한 후 선수단 전원에게 휴식이 주어진다. 1위로 진출한 덕에 단기 토너먼트에

서 보기 드문 꿀맛 같은 휴식까지 얻을 셈이다.

만나는 상대도 크게 어렵진 않다. 한국은 A·B·F조 3위 가운데 한 팀을 만난다. A조 3위는 바레인, B조 3위는 팔레스타인으로 정해졌다. F조 3위는 오만 혹은 투르크메니스탄이다. 4개국 모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바레인은 113위, 팔레스타인은 109위다. 오만은 82위, 투르크메니스탄은 127위다. 한국은 53위다.

국제무대에서 한 차례도 붙은 적이 없는 팔레스타인을 제외하곤 모두 역대전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바레인을 상대로는 16전 10승4무2패, 오만에 5전 4승1패, 투르크메니스탄에 3전 2승1패로 우세하다.

8강 상대는 D조 2위와 F조 1위의 승자다. D조 2위는 이라크가 유력하고 F조 2위는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중 하나다. 2위로 8강에 진출했다면 D조 1위가 유력한 이란과 만나는 시나리오보다 훨씬 낫다.

8강부터는 이동 거리에서도 득을 본다. 익숙한 아부다비로 돌아온다. 결승까지 진출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동없이 같은 도시에서 계속 경기를 치른다. 남한보다도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이동거리는 짧을수록 유리하다. 아부다비를 사실상 베이스캠프로 사용한 벤투호에 반가운 소식이다.

## ‘표현’이 아닌 ‘절제’가 필요했던 이승우

이승우(베르나)의 행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한국과 중국의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C조 조별리그 3차전이 열린 16일 오후(한국시간) UAE 아부다비 알나얀 스타디움. 한국은 2-0 승리를 거뒀다.

승리가 굳어진 경기 막판 이승우로부터 촉발된 작은 사건 하나가 벌어졌다.

벤투 감독은 후반 26분 첫 번째 교체 카드로 지동원(이우크스부르

크)을 택했다. 11분 뒤에는 이창용(보훔) 대신 주세종(아산)을 넣었다. 후반 44분 대기 선수들이 머무는 곳에 벤치로부터 마지막 교체를 한다는 신호가 전달됐다. 투입 명령을 받은 이는 구자철(이우크스부르크)이었다.

이승우는 교체 준비가 아닌 복귀 시간이 떨어지자 근처에 있던 불명을 걷어쳤다. 몇 걸을 옮겨 이번에는 수건에 발길질을 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착용

하고 있던 정장이 보호대를 쓴으로 빼 집어던졌다.

정황상 그의 행동은 자신이 선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때와 장소는 가려야 한다. 현재 한국은 59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매 경기 전열을 벌이고 있다.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행동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날 이승우에게 필요한 것은 표현이 아닌 절제였다.

뉴스스



## 전남게이트볼협회 이사회 및 임원회의 개최

게이트볼협회 사무실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회장 장귀남)는 지난 17일 영암군에 전라남도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 및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이사회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장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전남게이트볼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신 이사 및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 한 해 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빌며 동료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보고에 이어 김일호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2019년도 전남게이트볼협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전문위원 위촉식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식순에 이어 이사회 시작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한편 김영선 수석 부회장 외 3명과 이사 16명, 감사 2명과 전문위원 등은 2019년도 전남게이트볼 발전과 기술 및 저변확대를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중 프로축구 텐진, 최강희 감독에게 “나카라”

모기업 무너지며 자금줄 끊겨

중국 프로축구에 도전장을 내민 최강희 텐하이 감독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구단으로부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

중국 시나스스포츠는 16일 보도에서 텐진 구단이 최 감독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최 감독은 전지훈련지인 아부다비를 떠나 텐진

구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요구에 항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텐진 구단은 지난해 최 감독과 계약하면서 연봉 800만 달러(한화 약 90억원)에 3년 계약을 체결했다. 선수 영입에도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함께 자리를 옮긴 박건하·최성용·최은성 등 코치진도 7억원의 연봉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텐진 구단의 모기업인 취안젠 그룹의 슈우하이 회장 등 기업 관계자 18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취안젠 그룹이 파산 위기에까지 몰리면서 구단 운영에 손을 땀다.

운영권이 텐진시 체육국으로 넘어오면서 이들도 텐하이로 바뀌고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중국 ‘왕이 스포츠’는 텐진은 연봉을 8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원) 수준으로 낮추길 원한다고 전했다.

## LG 문선재←KIA 정용운 트레이드 단행

LG 트윈스는 17일 외야수 문선재(28)를 내주고 KIA 타이거즈 투수 정용운(28)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LG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좌완 투수진을 강화했다.

정용운은 중앙고를 졸업하고 2009년 2차 2라운드 KIA에 입단했다. 통산 54경기 등판해 4승 4패 평균자책점 6.60의 성적을 올렸다.

2018시즌에는 3경기 등판해 1승 평균자책점 6.30을 기록한 바 있다.

KIA는 외야 백업 요원을 보강했다. 문선재는 광주동성고를 졸업하고 지난 2009년 LG에 입단한 뒤 상무(2011~2012년)에서 군복무를 마쳤다. 프로 통산 7시즌 동안 31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0, 18홈런 87타점 107득점 26도루를 기록했다.

KIA 관계자는 “준수한 티격 능력



을 갖춘 문선재는 우타 외야 백업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오천, 창새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